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鍾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母校발굴팀

2천년전 神秘 캐내다



夢村土城서 百濟초기 遺物발굴 : 母校박물관팀이 몽촌토성에서 발굴한 유물들은 三國史研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사 진 ①發掘현장의 모습 ②고구려 중기의 전형적인 土器 ③백제土器. (관련기사18페이지)

冠岳春秋

母校는 43돌에 開校43돌을 맞이하며 10월15일은 開校43周年기념일이 된다. 우리 同門들은 해마다 이날을 기려 登山大會를 갖는다. 금년에는 10월22일에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同門뿐 아니라 同窓會의 家族도 참가하게 되어있다. 同窓會任員들은 미 모래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참가인원에 對應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마음은 기쁨으로 매우 부풀어있다. 母校는 개교기념일을 公休日로 정해서 公式의 인사는 없으나, 敎職員과 學生들은 하루의 行樂을 즐기게 된다.

母校의 43돌

年來의 숙원이었던 博物館과 奎章閣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轉作業과 내부치장이 한창이다. 가장 큰 변화는 순환도로상에 駐車하고 있는 車輛의 暴增에서 찾아볼 수 있고 있는 車輛은 대부분이 學生들의 것이고 교내의 駐車施設이 부족해서 敎職員들의 승용도 충숙시킬 수가 없게 되자, 학생들의 駐車場을 순환도로로 옮기려 한다. 그 넓은 순환도로가 아쉽다면 학생들의 車輛으로 분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이장당사에 상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으로 부터 20여년전 서울大學校移轉10周年計劃을 수립할 당시, 計劃委員會는 세계의 著名한 大學經營者를 초청해서 敎職員들의 駐車場을 순환도로로 옮기려 한다고 한다. 그때 美國의 저명한 大學校의 正副총장이 새 캠퍼스의 駐車場施設을 지로했던 탓으로 우리의 敎職員들의 車輛을 순환도로로 옮기려 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同門들이 갖는 母校의 이미지는 매우 多樣하다. 캠퍼스가 綜合化되어 冠岳으로 이전하기 전에 學窓生活를 보낸 많은 同門들은 자기가 다녔던 單科大學에 대한 추억이 더욱 클것이다. 冠岳캠퍼스는 그들에게 생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수감은 그들에게만 있지 않을것이다. 冠岳캠퍼스의 모습은 해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冠岳으로의 移轉 당시의 캠퍼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했다. 현한 산악지대의 들판에 시멘트건물이 앙상하게 여겨지기 흠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불천동, 신림동 그리고 낙성대에 서 大學으로 들어가느 교통은 매우 불편했고 주변의 風景도 또한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캠퍼스는 이러한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다. 移轉당시에 심어놓은 樹木이 제법 크게 자라 서 여름이면 녹음방초가 무성하다. 불천동에서 校門에 이르는 大路의 銀杏나무도 이제는 제법 커져서 美觀을 더해주고 있다. 낙성대에서 後門으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불마다 개나리 진달래가 불기운을 더해준다. 신림동에 서 正門으로 이르는 道路의 下水路도 대부분 복개되어 路幅이 넓어졌다. 이렇듯 大學의 주변환경이 변했다.

母校의 43돌을 맞아 16萬同門은 변한없는 愛情을 갖고 母校의 發展을 祈願할 일이다.

卒業20주년기념식

서울대학교의 뿌리

16

韓基彦

(48년 師大卒·母校교수)

가정대학의 뿌리는 사범 대학에 있다. 본래 가정교 육과로 되어있던 것이 69 년 독립하여 오늘날의 家政大學이 된 것으로서, 그러기 에 초기에 사범대학의 동창회원은 본시 사범대학가 정교육과 출신으로 되어 있 다.

家政大學은 이미 말한바 와 같이 사범대학 가정교육 과를 體制改編함으로써 1969년 신설된 것이다. 가정교육과 3과가 설치되 었다. 가정대학은 75년 관 학편제대로 이전하기까지 에는 당시 사범대학의 科學館의 일부를 校舍로 사용 하고 있었으며, 용두동 캠퍼 스 안에 사범대학과 함께 있 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반 성할 일이다. 그것은 가 정대학 신설의 母體도 되 었던 가정교육과는 불행히 도이 改編過程에서 사범 대학에서조차 자취를 감추 게 된 사실이다.

사범대학의 유서깊은 家政教育科는 설사 당시 가 정교육과 구성교수였던 전 원이 가정대학교수로 옮겨 갔다 하더라도 사범대학의 기구중 하나인「家政教育 科」는 존속시켰어야 옳았 던 것이다. 그까닭은 서울 대학교안의 모든 교육기관 제의 학과는 사범대학안 의 두뇌가 이치에 합당한 것 이고, 또 음악교육과나 미술교육과나 하서 새로운 교육학전제학을 사범대학 에 신설하지는 못할정도로 이 는 있던 사실인「家政教育科」를 廢科시킨 것은 情理에 도 맞지않을뿐더러 우리나 라 가정교육학 연구및 家政教師養成에 있어 甚히 不利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사실은 본디 「家政大學」가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가 없어도 본모를 양보하여 탄생하고 가정대 학에서 가정교육과가 없었 을테니, 이오직 애초에 사범대학이 가정대학인가? 아니면 가정대학인가? 라는 陳腐한 질문을 던져 살피므로 한디, 합고합아

만하면, 오늘날 가정대학에 는 消費者兒童學科를 비롯 하여 食品營養學科, 衣類學科가 있고, 한편 附設生活科學研究所가 있다. 장차 가정대학은 그명칭을「생활과 학대학」으로 개칭할 예정 인 것으로 들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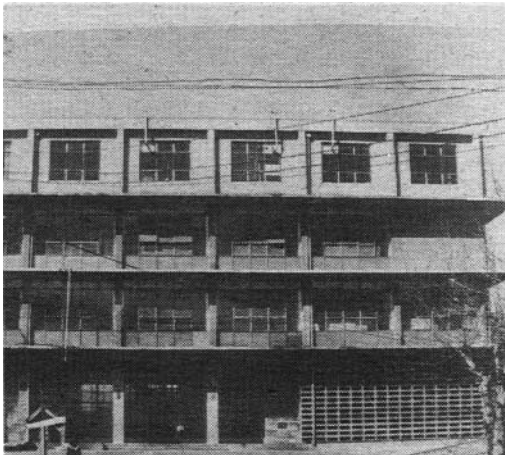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30년사」(1945~1974)라는 부제가 붙은「民主敎育의 搖籃」에 는 師大 家政科의 초창기 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기 술하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京城女子師範學校가 女子師範大學으로 승격하여, 오를날 가정대학에 는 消費者兒童學科를 비롯 하여 食品營養學科, 衣類學科가 있고, 한편 附設生活科學研究所가 있다. 장차 가정대학은 그명칭을「생활과 학대학」으로 개칭할 예정 인 것으로 들리고있다.

「서울대학교 30년사」(1945~1974)라는 부제가 붙은「民主敎育의 搖籃」에 는 師大 家政科의 초창기 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기 술하고 있다.

「해방과 더불어 京城女子師範學校가 女子師範大學으로 승격하여, 오를날 가정대학에 는 消費者兒童學科를 비롯 하여 食品營養學科, 衣類學科가 있고, 한편 附設生活科學研究所가 있다. 장차 가정대학은 그명칭을「생활과 학대학」으로 개칭할 예정 인 것으로 들리고있다.

家政大學



龍頭洞캠퍼스 師大科學館에 자리잡았던 초창기 家政大學 건물모습

으로 승격하여 학문별로 학을 설치함과 다과 家政科가 창설되었다. 그후 1946년의 女子師範大學과 男子師範大學이 합쳐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된 뒤, 이 대학의 가정학과 서울대 師大의 家政科로 승격되어 오며, 종사 하였던 家政科長이었던 女子師範大學長으로 계승을 당 시 가정과에 鄭良子先生, 方順京先生, 그리고 韓點南先生, 전임으로 계셨다. 그후 서울대 家政科로 되 었을 때에는 鄭良子先生, 張明郁先生의 전임으로 계 셧다고 한디,

「그러나, 당시의 교수상 황을 살펴보면, 초창기부터 재 지한 鄭良子교수는 6·25 1년전의 漢美하였고, 張明郁교수가 49년의 부임한 뒤 들 이외 金粉玉교수(서울

강이 있었다. 졸업생 아닌 분으로 있었던 金英玉교수 는 61년 문필부 창간인이자, 자를 옮겨 그후 오 랜동안 장학행정에서 가 정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썼던 것이다.

가정대학 승격이전부터 미 師大 가정과 졸업생들 이 모교에서 다수 교편을 잡게된데에는 첫째는 사대 통합전후 당시의 재학생들 이 못만아 열렬한 학구정 신에 말미암은 것이었지만, 또한 당시 사대학장이신 利郁博士의 진력 노력이었 어서였다고 하리만, 그러기 에 기록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家政科의 최고 학원의 는 오자사범학교 학생이었 던 玄順英, 朱貞一, 李惠秀, 權眞淑, 玄仁順의 5명이 있 었다. 이때 師大學長이던 張利郁 박사께서는 家政科의 발 전을 위하여 가정과 재학 생중 몇사람을 미인으로 유 학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스 칼라십을 일선하여 가정과 의 朱貞一, 權眞淑의 두사 람을 보냈다. 몇년후에 玄 仁順, 玄順英, 李惠秀도 차 례로 유학을 가서 家政學 을 깊이 연구하였다. 前掲 書, 317」고 하였다. 그 리고 당시의 학생한 학구 열에 대해서는, 「초창기의 학생들은 대단히 學問熱이 높아서, 正規課程의 외 그를 을 지어 正課과목에 대한 討論, 우리나라 가정생활에 대한 討論과 미국유학들을 꿈꾸며 열심이었다」고 밝히 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 당시 사대 재학중이었기에

69년 발족, 師大 家政教育科가 뿌리
消費者兒童, 食品營養, 衣類學科로 구성
龍頭洞 캠퍼스에서 75년 冠岳에 옮겨

요면, 保健食 등의 科目을 개 설하여, 더한층 家政學研究 에 박차가 가해졌다. 파 단 시점이었지만 학생들의 학 습의욕이 저하됨을 막기 위 하여, 본과(가정과)에서는 卒業論文을 쓰게했다. 이것 이 통과되지 않으면 學點 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 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 시에 이 論文이로 인하여 卒業이 연기되니 학생이 2 명이나 3명 정도였다. (317-318)라고 비탄 피 니사대였고 또 이어서 서 울한두후 얼마 안되니 시 기였던 미국에서 단기간 수학하고 돌아온 신대동창 교수들의 참신한 강의정취

과 문교당국에서도 이를 계 기로하여 家政科에 대한 인 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또 하나는 6·25동란후 서 울 遷都전후의 가정과 情 景에 관해서이다.

「6·25동란으로 서울대 학교의 移動에 따라 釜山 으로 피난을 갔고, 판자집 學校였지만, 다시施設을간 단히 갖추어 實驗實習까지 하였다. 52년 朱貞一교수가 귀국하여 家族關係와 兒童 發達을 강의해서, 새로운분 야의 강의를 개설하였고, 遷都한 다음 54년에는 玄 己順교수가 귀국해서 식이

와 학문적 업적성이 卒業 論文 심사 과정에서도 보 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당시 가정과의 자람은 우 수학생의 지방과 大學院 家 政科의 실재에까지 눈길이 된다. 즉, 「師大에서 女性 으로 구성된 유일한 家政 科는 학생들의 실현도 점 점 향상되었는데 62년의 入 學試驗에서는 사대 16개 과 중에서 最高의 科 커트라 인을 차지했다. 그 뒤로도 계속 전체에서 2~3위를 유지했다」고 하였고, 60년에 그간의 화부출입생들의 卒業論文을 수록하여 논문집 을 발간하였다. 논문부정제 에 따라 초급대학이 많이 설립됨으로써 人材需要가 급 증하게 됨을 예측하여 62 년에 大學院에 家政科를 두 어서 學問研究에 더 넓은 전을 마련했다. 그리고 68 년에는 첫번째의 碩士論文 集을 엮은 것이다.

여기에 있어 家政大學으 로 개편되기 전부터 자리 가 잡힌 것이「家政管理實 習館」인데, 그 기능이 지 니는 교육적 의의는 매우 컸다. 즉, 사대 가정과에서 는 57년에 이르러 외국의 家政大學에서 하는 것과 같 은 家政學의 종합실습장인 家政管理實習館이 절대 필 요함을 의식한 빛나는 성 과로「生活館」을 갖게 되 었다. 이것은 용두동 캠퍼 스 청량대 뒷편에 자리잡 은 부속학교 사택을 구입, 家政管理學의 理論의 맞 는 시설로 대수리를 하여, 주 인 생활편이니만큼, 당시로 서는 대단히 진취한 시설 이었음을 말한 나위도 없다. 이 생활館은 4학년 학 생들의 履修課程으로 3주 간의 생활하면서 家政管理 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 다.

그런데, 생활관은 그후 63 년에 또 하나의 家政管理實 習館이 신축됨으로써, 舊館 은 처음의 계획대로 低所 得層 또는 해가파의 생활 관리실습장이 되고, 新館은 학간의 富裕層으로 가족의 수가 늘어난 가정에서의 생 활實習으로 사용하게 되 었던 것이다.

家政大學인 이러한 師大 家政科에 뿌리를 두면서 개 편 정책이 있었기에 지금 다 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줄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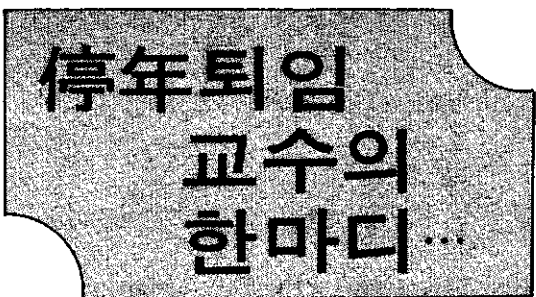
鄭英昊 교수

自然大・植物學

1924년 평양에서 출생, 53년 이래 35년 10개월간 母校 교수로 재직해온 鄭英昊교수는 식물분류학의 권위자로 식물학계의 독보적인 저서「한국식물도감」, 「자연보호총람」등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반달이」그라라니카도 체력때문에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퇴임한것 같지 않아요. 비록 강의는 끝났지만 이어서 퇴임한것 같지 않아요. 비록 강의는 끝났지만 이어서 퇴임한것 같지 않아요. 비록 강의는 끝났지만 이어서 퇴임한것 같지 않아요.

中國과학원과 共同研究계획

만 연구는 계속할 것임이라고 퇴임수업을 밝히는 鄭교수는 퇴임후에도 환경에서 하고 있는 전국녹색조사를 계속하고 나아가 연변의 중국과학원과 공동연구할 계획이라고. 재임시 아끼는 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을때 가장 도움을 주었다는 鄭교수는 과거 동종동식물의 시범부족·생물고 등을 이룩했던 일로 회상하기도.



반평생을 母校강단에 바친 여덟 분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지난달 31일 母校 문화관 소강당에서 거행되었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전념해온 老教授들의 勞苦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분들의 獻身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本欄을 통해 한 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鄭昌熙 교수

自然大・大氣科學

『27년간 재직하며 아쉬움도 많았지만 후학을 양성하고 대기과학자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것이 보람으로 남는다』며 회상과 장기는 鄭昌熙교수는 한국에서 대기과학이 학문으로 정착하기까지 대를 이어 학업을 한 원로이다. 1924년 천안에서 출생, 50년 母校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68년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鄭교수는 62년 母校 사범대학교수로 발령, 71년부터는 자연대교수로 재직해 왔다.

大氣과학 定着에 큰 功獻

75년 관악으로 이전하면서 그전에 천문기상학과에서 천문학과와 대기과학과로 분리되어 대기과학이 독자적 학문의 면모를 갖추게 된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 가장 보람이었다고 앞으로 대기과학의 연구과제는 기상예보의 수치화·통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李澤植 교수

工大・機械工學

유체공학분야 業績 뚜렷

퇴임수업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신하며 그동안의 재직시절을 회상하는 李澤植교수는 48년 母校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52년 전일강사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좋은 재직해온 母校의 산증인이라 할수 있다. 열전달및 유체공학분야에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긴 李교수는 미네소타 프론티어에 의해 연구받은 일과 두차례의 학술회에서 대한기계학회 국제정도로 인정받은 일이 재직중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소개한다. 지난 77년 대통령표창, 82년 母校 30년 건국공로표창을 다양한 수상경력에 있으며 대한기계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38년을 회고하며 李교수는 많은 후학들에게 더욱 학문에 정진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李載聖 교수

工大・化學工學

한국 化學工學界의 代父

『사람이 현명하게 행동하는 세가지 길-모방·명상·실천-중에 실천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孔子의 가르침을 재상하여 붙여놓고 생활하는 것이 인상적인 한국화학공학의 대부 李載聖교수. 50년대 어렸을 생활여건 가운데서도 학교안에서 침식하며 인조석유를 만들어 냈던 일이 가장 보람있었다는 李교수는 요즈음에는 에너지분야 특히 태양에너지의 저장과 분리의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1924년 황해도 수암에서 출생, 46년 경성대학을 졸업하고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68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제 안식을 찾을 때가 온것 같다며 퇴임수업을 밝히는 李교수는 퇴임후, 출가본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李殷雄 교수

農大・農學

農學人의 사명의식 力說

『전반의 시기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주인공의 획일적 방법으로 지향점을 잃었으며 개인주의의 맹배, 보수와 진보사이의 부조화를 불러왔다』고 회고하는 李殷雄교수. 남로 피폐되가는 한국농민의 현실 앞에서 농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막고 싶었다는 李교수는 『농학은 인류문명발달의 근원이었음의 망각되어서는 안되고 그 책임은 바로 농학을 공부하는 농학인에게 있다』고 농학인의 사명의식을 역설한다.

45년 母校 농대의 전신인 수원농림전문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49년부터 母校에 재직하며 농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학술원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근년에는 仁村實 학술위원직을 수상하기도.



李杜鉉 교수

師大・國語教育

『정년이라지만 학자는 자기학문을 계속할 뿐이니까 정년이 있을수 없지요』라며 퇴임수업을 밝히는 李杜鉉교수. 한국 가문인 민족화의 의지를 걸어온 李교수는 현 시기 서구문화 수용에 있어서 번역문화에 대한 실감한 반성과 원전중심의 학풍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母校에 연희민족 또는 공민 예술문화의 학

學問엔 停年 있을수 없어

과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후학들에게 자기문화 탐구의 열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그의 호「宜民」의 「宜」가 말해주듯 평소「명민하게 살 것」을 역설해온 李교수는 50년 母校 사범대 국문과를 졸업, 58년부터 母校 교수로 봉직하며 「韓國假面劇」등 저서 10여편과 논문 80여편을 집필했으며 대한민국어문학회·학술원상들을 수상했다.



李雄植 교수

師大・生物教育

基礎과학에 집중 投資를...

『40년을 이곳에서 보냈고 당분간은 계속 강의를 맡게 되어서 그런지 퇴임이라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퇴임수업을 밝힌다. 3년동안 英國 웨일즈대학에서의 유학기간중에 전공 지식의외로 많은 교훈을 얻어 기억에 남는다는 李교수는 외국의 연구풍토와 연구성과 보존실태를 예로들면서 재정적 뒷받침 없이 첨단연구업종의 학부 아침에 나옴기를 기대하는 무모함은 하루빨리 깨뜨려져야 한다며 기초과학부문의 집중적인 투자와 관공유발의 시급함을 강조한다.

49년 母校 사범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53년부터 母校교수로 봉직해 왔다. 그가 펴낸 저서로는 「유전학」 「최신유전학」 「세포생물학」 「新制유전학」 등이 있다.



車文豪 교수

齒大・齒醫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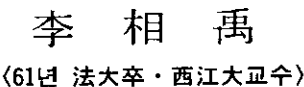
小兒齒科學 최초로 導入

『40여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일만지 더 할수 있을것만 같아』라고 퇴임수업을 밝히는 車文豪교수. 47년 母校치과대학 전문부를 졸업한 이후 출판 모교에서 재직해온 車교수는 54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수학과 소아치과학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 과학자가 지켜야 하는 질서와 규율을 중요시하며 사에 동료·후학들에게 엄격하지만 사생활은 절제로 치과대학의 변「이란」별명을 가진 정도라고. 학생교육을 철저한 임상교육과 의사로서의 윤리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車교수는 퇴임후에는 「1년정도 휴식을 취한후 개업을 하여 의사직을 정을 계획이런고.

統一 문제의 解剖

— 運動, 過程 그리고 狀態 —

—運動，過程 그리고 狀態—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同門을 찾아



라 재미가 있어서, 그
리고 專門技藝을 읽다
가 머리를 신하느 기
분으로 보았습니디.』
張鶴亭의 바둑심화는
에서도 잠깐 언급한바
와같이, 아마 6단. 현
재 우리나라에 있는 아
마 6단의 10여명 있
는데, 張鶴亭은 그중의
서도 최정상이라고 그
가 인정하고 있다. 그
는 특히 지난 70년에
는 일본 棋界를 주름
잡고 있던 사카다 에
리고 프로수준이 향
돼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정되
야 합니다. 현재 金宇
中總裁에서 많은 도
을 주고 있지만, 아직
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프로들의 생활이 불
정한 상태입니다.
다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개발적 차원에서 수학과 같은 國民-中學校 科정에 필수과목으로 넣어 왔다.

최근 한국바둑계는 농9단의 세계제패와 함께 劉昌赫·李昌鎬3단의 혜성같은 등장으로 이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李3단은 지금도 가위 정상급에 와있는 유망주로 서 앞으로 이들의게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중권(군·정귀원양) 10월15일 오후1시30분.

▲신필승(군)82년 師大卒·성동여실(군)·박은영(85년) 師大卒·수도영(군)양 10월15일 오후3시.

▲소재천(87년 工大卒) 군 김태연양 10월21일 오전 11시.

▲이준성(86년 經營大卒·한일중권)군·주세옥양 10월21일 오후12시30분.

▲김상관(85년 工大卒·성경)군·변숙자양 10월21일 오후3시30분.

同窓會館 冠岳書

▲임동환(86년 醫大卒) 군
▲장성희(87년 醫大卒) 양
10월 1일 오후 1시。
▲박창우(84년 社會大卒)
대우증권 군 이소연 양 10
월 1일 오후 2시 30분。
▲성로제(86년 法大卒) 군
4시。
▲박미영 양 10월 1일 오후
4시。

▲최승환(86년 經營大卒)
신입회계법인 군 김영숙 양
10월 3일 12시。
▲이의준(85년 師大卒·서
울경제신문) 군 정재연 양 10
월 3일 오후 1시 30분。
▲한석구(85년 經營大卒·
한신) 군 김기현 회양 10
월 25일 오후 4시 태극당에서 유족들과 화목。

▲정환연(85년 農大卒) 11월 4일 오후 1시 한신에서 화목。

▲홍도원(84년 醫大卒) 11월 4일 오후 1시 한신에서 화목。

▲조로규 건지동소재 서울에서 화목。

▲남창주(87년) 工大卒・독
 양나이를출판영구소(군)・서
 전 10월 7일 오후 2시
 ▲김현태(85년) 自然大卒・
 금정하다씨스택(군)・김경
 회왕 10월 7일 오후 3시 30
 ▲이종범(87년) 自然大卒・
 중앙기상대(군)・제8주양 10
 월 8일 오후 12시 30분
 ▲박병구(83년) 工大卒(군)
 시 30분
 ・이은순양 10월 9일 오전 11
 시 30분
 ▲박종태(84년) 社會大卒・
 한겨레사회연구소(군)・최미정
 (86년) 師大卒・신영중학교(양
 10월 9일 오후 1시
 ▲박차익(82년) 工大卒(군)
 ・김소량양 10월 14일 오전 1
 시
 ▲김형주(87년) 工大卒・대
 우출판영구소(군)・박혜정양 10월
 14일 오후 12시 30분
 ▲이재진(89년) 人文大卒(군)
 김영숙양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유영(84년) 農大卒・농
 인출판영구소(군)・김보경양 10

들었는대 아무 共感이
들어 혼자서만 알고있
기에는 아쉽서 소개
하고자 한다. 절영화의
원리가 기이체 절영화
인체의 절영화도 작용
이 될수 있는 모양이
다. 하기는 절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절영이건
강판이라고 하여도 우
습지 않을 것이다. 행
복하기 위한 다섯가지
조건이 첫째는 이렇다
한 것이 없는 건강하
여야 한다는 것인데 말

中年期 건강 생활

최근 이 신문사에
서 주최한 절영인 해
외연수단을 따라서 약
1주간 절영화를 하고
아왔다. 필자는 건강관
계 강화를 위하여 절영
강사 중에는 누구보다
하면 누구나 알수 있
는 절영한 절영화자도
있어서 재미난 시간
을 같이 보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대중연이후의 사람들
이 행복하기 위해서
다섯가지 조건이 있다
는 것을 그 부연으로

할 나위도 없다. 건강
이 나쁘면 인생 전체
가 소그쳐진다. 통째로
울하게 된다. 통째로
건은 자기의 배우자도
건강하여야 한다. 남자
인 경우의 부인이 인
제나 병상에 누워 있
거나 그렇게 누워 있
는 것은 그 사람의 생
활은 없다. 그러므로
건강의 불평을 하

먼저 모른다. 무부
백내로 하다가 아
내의 손길에 의하여
을 감게 되는 것 처
남자의 행복이 없다
말이 있는데 사실의
각한다면 그걸 생
각한다면 그걸 생
들 안아내는 사람들
의 손을 써지지 말고
수중에 하여야 할 것이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 명예교수

고 있으면 가정 전체
가 침울하게 된다. 아
내가 남편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수위
를 잃으면 절영화도
고통한이 중년 이후의
행복이다. 남성의
행복은 이가 될 텐

다. 세계 조건의 노후
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생하지 않을 정도의
재원은 있어야 한다.
재에서 재산이 너무 많
아서 집착하게 되면도
아니 불행하게 될수도
있어. 친구들 모이는데

로 위하는 이가
있다. 절영이후에는 타
산을 하여 이왕치가
있을 것 같아 사귀는
구는 역시 고달프서
를지 못하다. 절영이후
첫째가 혼자서도 무로
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취미가 있어
한다. 할 일이 없

每事に 긍정적인姿勢が 필요 좋은 친구와 趣味生活 갖도록

가서 후회하는데 빠
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다. 생각한다. 내
터놓고 사귀는 것
구가 있어야 한다. 서
로 그 마음을 갖고, 만
나면 무조건 반갑고
담이 되지는 친구
이야 한다. 흔히 있
는 사교단체의 친구
서로 허세를 부려야 하
기 때문에 도리어 신
경이 쓰여서 고단하다.
동담도 지나치게 뒷
이 쓸쓸하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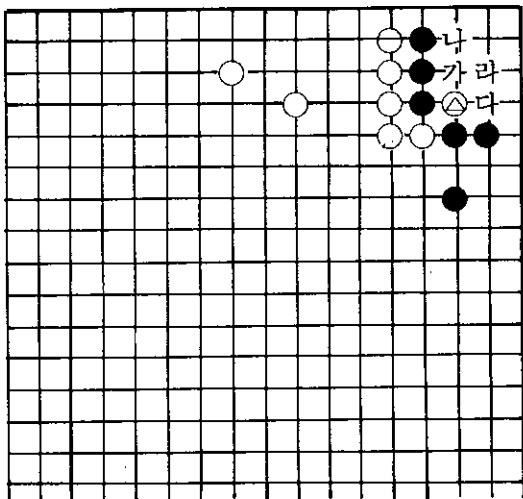
어서 권태로운 인생
다. 불친절한 것이
(2)
이와 같은 다섯가지
조건을 지닌 사람은
후가 두고 두고 행복
할 것으로 공언이
그에서 그 이상 더
가할 말이 없지만 조
금의 趣味生活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지
는다고 있다.
① 뚜렷한 목표와 파

만족과 보람을 위해
하는 일이다. 『자기
는 일에 보람을 느끼
는 사람』은 한 평생
을 의무적으로 하는
람에게는 한평생의
『자아』라는 말이 있
② 과거를 버리고
로 살아가자.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아
면 대수롭지도 않은
저 때문에 체면을 차
린다고 자기 체면에

중에 질릴 필요는 없다.
④ 의욕이 되지 않
고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하면서
아가자. 모든 사람은
두 나를 해칠려고 하
는 敵이라고 생각하
서 사는 사람처럼 불
행한 인생이 없다. 나
이가 많아 질수록 인
간관계가 넓어지는
생이여야 한다. 현재
나이가 아무도 관심을
지니지 않는 인생이
어는 안 된다.
⑤ 마음의 절리는 일

은 하지 말자. 마음에
절리는 일을 단행하면
절단력이 있는 것 같
지만 두르고 열려가
되어 마음과 몸의 건
강을 해친다. 차라리
는 것이 낫지 않을 때
리고 나면 혼자라도
다. 되는 것이 인생
전체의 70퍼센트가
을에서 생긴다면 이
것들을 생각하면서
는 것도 건강면의 한
타이 되지 않을까 생

문제도 : 白의 최선은?



趣味生活

바둑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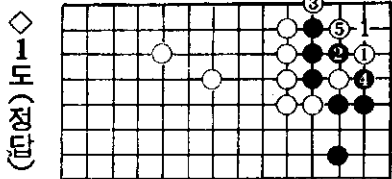
朴治文

(79년 人文大卒 · 世界日報記者)

脈點 찌르기

바둑에서의 「脈點」이란 어떤 형태
의 급소를 말한다. 布石이나 大勢
의 급소가 아닌 부분적인 급소.
그러나 이 작은 급소 한방은 一
波萬波로 판위에 영향을 미친다.
行馬의 급소, 死活의 급소, 끝내기
의 급소.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脈點이라 부른다.

◇문제도...黑귀에 白 한점이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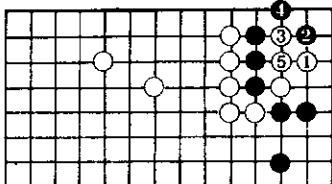


혀있다. 이 한점을 이용하여 최대
한 이득을 얻어내는 脈點을 찾는
문제. 白「가」는 黑「나」로 안되고
白「다」는 黑「라」로 그만이다.

◇1도(정답)...白1이 백점이다.
黑2로 잡을수밖에 없을 때 다시
白3으로 넘는수가 두번째 백점.
한점을 이용하여 귀의 黑집이 白
집으로 변했다(黑6...이름)

◇2도(黑전멸)...白1에 黑이 2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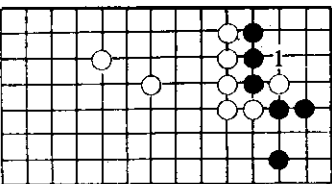


로 버티면 3의 끼움수가 백점.
黑이 동방 잡힌다.

◇3도(18집끝내기)...그러므로 黑
1로 잡는 것은 매우 크고 또 黑
전체의 근거와 관련된 수가 된다.
黑1의 크기를 계산하면 18집이나
된다.

이와같은 수단을 흔히 「잔수」
라 부른다. 잔수를 시시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잔
수야말로 전쟁의 사격술처럼 바둑
의 근본적 戰力이 된다.

◇3도



[illegible]

[illegible]

대화 ▲교수 김성호=을
 교수 이 ▲교수 이
 속▲음악대학 작곡과
 론전교수임 ▲ 교수
 기원▲음악대학 기악과
 점 피아노전교수임 ▲
 부교수 윤영숙=음악대
 기악과 원자전교수임
